

‘구렁덩덩 신선비’에 나타나는 여성의 스키마와 상흔

유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박사급연구원, 국어국문학 전공
rulyjina@hanmail.net

I. 머리말

II. ‘구렁덩덩 신선비’의 제보자 특징

III. ‘구렁덩덩 신선비’에 나타나는 여성의 스키마

IV. ‘구렁덩덩 신선비’에 나타나는 여성의 상흔

V. 맺음말

이 논문은 필자가 2015년 ‘제12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주최: 국제고려학회, 빈대학 동아시아학연구소 한국학과)에서 발표한 「변신형 설화 및 이물교혼형 설화에서 나타나는 설화와 공동체의 상호작용」의 2장 ‘구렁덩덩 신선비’에 관한 부분을 발전시킨 것이다.

I. 머리말

이 글에서는 구비 설화인 '구렁덩덩 신선비'에 나타나는 여성의 의식세계를 관찰하고자 한다. 연구 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¹⁾에서 채록된 48편의 각 편을 대상으로 한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겠지만, 『대계』의 각 편 48편의 제보자 성별은 모두 여성이며,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전승해준 자 역시 노년 또는 중년의 여성으로 추측된다. 이 글에서는 '구렁덩덩 신선비'의 제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구렁덩덩 신선비'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스키마와 상흔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렁덩덩 신선비'는 여성들에 의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구렁덩덩 신선비'는 여성의 '스키마(schema)'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키마'라고 함은 외부 세계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로서, 인생 체험으로 형성된 지식을 포함한다.²⁾ '스키마'는 이야기, 즉 '스크립트(script)'의 형식으로 구성되며³⁾, 문자가 없던 시대에 구비 전승되는 이야기는 훌륭한 '스크립트'로서 기능하였다. 이야기는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간접 체험으로 주인공과의 감정적 동일시(identification)를 통해 스스로 깨달아가는 자기 인식의 과정⁴⁾이기 때문이다. '구렁덩덩 신선비'의 서사 내용을 여성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구렁덩덩 신선비'가 가부장적 농경문화를 경험해온 여성의 스키마를 담고 있는 '스크립트'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구렁덩덩 신선비'의 여성 제보자들은 구술하는 과정에서 여성으로서 경험해온 개인적인 삶의 질곡을 자연스럽게 분출하고 있다. 이야기를 구술하는 것은 전해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기억하여 전달하는 것이 아닌 리텔링(retelling)으로, 제보자의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이 개입되어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된다.⁵⁾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약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 약자로서 살아온 여성에게는 개인적 경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상흔이 나타날

1) 『한국구비문학대계』는 전국적 구비자료 총서로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의해 1978-1984년에 채록되어 1979-1988년에 82권으로 출판되었다. 이하 『대계』로 명시한다.

2) 최혜실, 『스토리텔링, 그 매혹의 과학』(한울아카데미, 2011), 105쪽.

3) 위의 책, 66-77쪽.

4) 나병철, 『소설과 서사문화』(소명, 2006), 448쪽.

5) 유강하, 「스토리텔링과 리텔링」, 『중국소설논총』 31(2010), 487쪽.

수 있다. 서사치료학적 입장에서 이야기의 치료기능을 전제로 할 때, ‘구렁덩덩 신선비’는 여성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로서 제보자의 개인적 체험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여성의 내면의 상처가 외재화(外在化)됨으로써 부정적 감정이 소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까지 ‘구렁덩덩 신선비’는 그 신성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되어 온 경향이 있다. ‘구렁덩덩 신선비’에는 물론 신성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구술과 전승과정에 초점을 맞출 때, 현재와 관련 있는 내용이 살아남아 전승된다⁶⁾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구렁덩덩 신선비’가 여성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의 스키마와 상흔에 대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II. ‘구렁덩덩 신선비’의 제보자 특징

표1- ‘구렁덩덩 신선비’ 유형의 제보자 특징

순차	제목	제보자	채록 연도	지역 / 생업	성별	나이	생년	결혼생활	교육	전승자/기타	서사/제보자/마을 정보 수록
1	구렁덩덩 신선비	목OO	1983	강원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농업	여	63	1921	결혼(16세)	없음 한글 (독학)	어렸을 때/ 독실한 기독교인	『2-6』 618/552/ 549쪽
2	구렁덩덩 신선비	이OO	1979	경기 여주군 본두리/농업	여	71	1909	결혼(18세)	한글	어렸을 때, 올케/남편(회사원, 공무원) 따라 이주 경험/사별 후 최근 귀향	『1-2』 366/309/ 306쪽
3	구렁덩덩 신선비	권OO	1982	경기 용인군 원삼면 땡리/농업	여	84	1899	결혼(15세)	없음	4남매	『1-9』 453/426/423쪽
4	구렁덩덩 신선비	오OO	1982	용인군 이동면 서리 2리/농업	여	68	1915	결혼(15세)	없음 문맹	13-14세 증조 할머니/ 6남 2녀	『1-9』 200/197/194쪽
5	구렁 신선비	양OO	1979	경남 거제군 장목면 사방리/어업	여	74	1906	결혼(18세)	한글 (남편)	친정 할머니/근교 동리로 시집은 후 일평생 거주	『8-1』 195/172/167쪽
6	뱀신랑	이OO	1980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농업 (과수)	여	57	1924	결혼 사별(55세)		남편이 후처를 들임/노래를 잘함	『8-5』 50/25/19쪽
7	뱀신랑과 열녀부인	김OO	1981	경남 밀양군 무안면 무안리/농업	여	68	1914	결혼(18세)	없음	저랄 때/시집은 후 동일 마을에 거주	『8-7』 638/466/453쪽
8	뱀에게 시집간 딸	이OO	1981	경남 밀양군 심령면을 청학리/농업 (과수)	여	71	1911	결혼(17세)	한글	독실한 불교신자/고부간 모자간 가족관계에 관심/근교 동리로 시집과 일평생 거주	『8-8』 190/29/ 21쪽

6) 윌터 J. 옹 저, 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문예출판사, 2014), 77쪽.

순차	제목	제보자	채록 연도	지역/생업	성별	나이	생년	결혼생활	교육	전승자/기타	서사/제보자/ 마을 정보 수록
9	구령당당 신선비	우OO	1984	경남 울주군 삼북면 명촌리/농업	여	72	1913	결혼(15세)		남편을 따라 부산, 양산, 일본 등으로 이주/농사	『8-13』 558/446쪽
10	구령 선비	박OO	1984	경남 울주군 언양면 반곡리/농업	여	51	1934	결혼	없음 문맹	농사/무당	『8-12』 598/434/424쪽
11	구령이 신랑	박OO	1982	경남 의령군 지정면 상산리/농업	여	72	1911	결혼(16세) 사별(34세)		4남매를 홀로 키움	『8-11』 440/377/373쪽
12	구령 선비	김OO	1982	경남 의령군 철곡면 외조리/농업	여	66	1917	결혼(17세) 사별(52세)	없음 문맹	2남 1녀/근교 동리로 시집온 후 일평생 동일 마을에 거주/농사	『8-10』 597/511/503쪽
13	백신랑	김OO	1984	경북 구미시 원평1동/ 상업 농업 (토박이)	여	86	1899	결혼(18세) 사별		2남 1녀/동일 '시'내 이동	『7-15』 142/27/ 21쪽
14	구령이 허물 벗은 선비	최OO	1982	경북 군위군 소보면 대흥 2동/농업	여	63	1920	결혼(18세)		어릴 때 이웃 어른, 오빠/ 3남 3녀/농사	『7-12』 140/20/ 15쪽
15	백아들의 결혼	안OO	1982	경북 봉화군 소천면 석포리/농업	여	63	1920	결혼(16세)		처녀 시절 친정 할머니/오랫동안 남편이 탄살림	『7-10』 631/551/542쪽
16	구령이 선비	문OO	1981	경북 상주군 사벌면 화달 1리/농업	여	56	1926	결혼(19세)		시집살이 노래 잘 부름/ 과수원 경영	『7-8』 555/506/501쪽
17	구령이와 정승의 셋째 딸	박OO	1979	경북 상주군 대기면 옥성 1동 여수동/농업, 과수원	여	73	1907	결혼	없음	70 평생 고향에거주/ 이ಾಗಿ 보따리(별명)/농사	『7-4』 220/113/107쪽
18	백신랑의 슬픈 운명	하OO	1984	경북 상주군 월항면 대산 1동/농업	여	62	1923				『7-5』 44쪽/없음/15쪽
19	백서방	조OO	1980	경북 영덕군 달산면 대지 1동/농업	여	72	1909	결혼 (19세, 재취)	없음 한글	친정 어머니/전처소생의 남매 키움/남편이 일찍 병들어 고생/일본 등 객지 생활하다가 귀향/조종진, 육단춘전	『7-6』 578/262/261쪽
20	구령당당 신선비	전OO	1983	대구 서구 내당동	여	62	1922	결혼(16세)		2남 1녀	『7-13』 374/41쪽/없음
21	구령당당 서선비	임OO	1982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농업	여	66	1917	결혼		술을 좋아함	『6-8』 729/657/654쪽
22	구령당당 신선비	김OO	1982	전남 장성군 분향리/농업	여	77	1906	결혼(20세) 이혼/재혼		이웃 노인에게/ 무당	『6-8』 711/655/654쪽
23	구령이에 게 시집 간 막내딸	이OO	1979	전남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농업	여	67	1914				『6-1』 422쪽/없음/ 287쪽
24	백서방	이OO	1984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농업	여	71	1914	결혼(15세), 사별(23세)/ 재혼(30대 중반), 사별 (64세)		어릴 때 어머니/1녀/ 어렵게 삶	『6-5』 154/113/111쪽
25	구령당당 신선비	진OO	1979	전북 남원군 금지면 웅정리	여	68	1912			15세 내외, 친정 어머니에게	『5-1』 472쪽/없음/없음
26	구령당당 신선비	고OO	1982	전북 옥구군 서수면 서수리	여	70	1913	결혼(14세)		처녀 때	『5-4』 827/824쪽/없음
27	구령당당 서선비와 그의 아내	백OO	1980	전북 완주군 윤주면	여	68	1913		없음	어렸을 때 아버지/원불교 신자	『5-2』 374/288쪽/없음
28	구령당당 신선비	백OO	1980	전북 전주시 서서학동	여	62	1919				『5-2』 226쪽/없음/없음

순차	제목	제보자	채록연도	지역/생업	성별	나이	생년	결혼생활	교육	전송자/기타	서사/제보자/마을 정보 수록
29	구령당당 신선비	김OO	1980	전북 전주시 풍남동	여	81	1900				『5-2』 176쪽/없음/없음
30	구령당당 신선비	임OO	1980	전북 완주군 동산면 신월리/농업	여	50	1931			친정 고향에서	『5-2』 640/619/618쪽
31	구령당당 신선비	신OO	1981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여	74	1908				『5-3』 68쪽/없음/없음
32	구령당당 신선비	김OO	1981	전북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	여	54	1928	결혼		어려서 들음/조사자 친누이	『5-3』 468/466쪽/없음
33	구령당당 신선비	김OO	1985	전북 정읍군 김곡면 용곡리/과동/ 농업	여	76	1910	결혼(18세) 사별		보시 나온 두 보살과 구영/ 7형제/시집은 후 계속 거주	『5-5』 660/559/555쪽
34	구령당당 시선부	시OO	1984	전북 정읍군 신태인읍/ 농업	여	78	1907	결혼(19세) 사별(45세)		일찍 죽은 자녀가 있음/현 2남 2녀/정읍군내 이주(신태인읍→고부리)	『5-5』 310/287/353쪽
35	구령당당 신선비	김OO	1985	전북 정읍군 북면 탑성리/농업	여	73	1913	결혼(15세)		외동딸/3남1녀 동/농사	『5-7』 174/162/160쪽
36	구령당당 신선부	이OO	1984	전북 정읍군 소성면 신천리 춘수	여	81	1904	결혼(15세) 사별(56세)		4대째 거주/ 2남/농사	『5-5』 262/225쪽/없 음
37	구령당당 시선부	김OO	1985	전북 정읍군 신태인읍 신태인리/ 농업	여	75	1911	결혼(13세) 사별(62세)	없음 문맹	시집은 후 동일 마을에 거주/2남1녀/날뽕말이	『5-5』 395/358/354쪽
38	구령당당 시선부	신OO	1985	전북 정읍군 입암면 대흘리/염직 공업, 보천교	여	70	1916	결혼(20세) 사별(35세)		고향에서/시집은 후 동일 마을에 평생 거주	『5-6』754/734/ 731쪽
39	구령당당 시선부	송OO	1985	전북 정읍군 정우면 대사리/산간 마을	여	71	1915	결혼(17세) 사별(67세)	문맹	남편 몰래 무당 활동	『5-5』 698/691/690쪽
40	구령당당 신선비	조OO	1983	충남 공주군 우성면 도천리/농업	여	58	1926	결혼		어려서/해방 후 공주군 근처 청양군에서 이주	『4-6』 584/579/577쪽
41	구령당당 신선비	유OO	1983	충남 공주군 의당면 월곡리	여	75	1909	결혼(20세)	한글 (어머니)	어릴 적 어머니에게 들음/남편(국민학교 선생)의 근무지에 따라 이주/이야기책 다독	『4-6』 178/96쪽/없음
42	구령당당 신선비	김OO	1983	충남 공주군 이인면 신흥리/농업	여	79	1905	결혼	한자 한글	조부, 부친 혼정/ 교훈적 태도	『4-6』 641/632/629쪽
43	구령이를 낳은 할머니	손OO	1980	충남 당진군 석문면 통정리/농업	여	82	1899	결혼(18세)		시집은 후 평생 동일 마을에 거주/아들 5형제를 모두 읽음/수양딸과 어렵게 살	『4-1』 356/335/333쪽
44	구령당당 소선비	박OO	1982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농업	여	66	1917	결혼		어렸을 때 친정 오빠	『4-5』162/29/ 19쪽
45	구령당당 소선비	황OO	1982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상업	여	71	1912	결혼(14세)		시집은 후 평생 동일 마을 거주/농사	『4-5』 355/225/215쪽
46	옥골남자 로 변한 구령이	박OO	1982	전남 신안군 정산면 마초리	여	47	1936	결혼(21세)	국민학교 졸	2남 3녀/ 농사	『6-7』49/19쪽/ 없음
47	동동 시선부	김OO	1982	경남 김해군 상동면 우계리/농업	여	66	1917	결혼(19세) 사별(28세)	야학, 한글	1남/부락 내 혼인으로 일평생 동일 마을 거주/농사	『8-9』 999/862/쪽
48	구령이 지식	황OO	1984	전남 화순군 동북면 연월 1구/농업	여	73	1912	결혼 사별(30세) 재혼		초혼 시집 증정, 전북 등 이주 경험/재혼 후 현 동리에 거주 시자/농사	『6-11』 627/495/483쪽

『대계』에서 채록된 '구렁덩덩 신선비' 유형의 각 편은 모두 48편에 이른다. 서대석은 「〈구렁덩덩신선비〉의 신화적 성격」⁷⁾에서 『대계』의 '구렁덩덩 신선비' 각 편을 모두 32편으로 밝히고 있는데, 필자는 16편을 찾아 추가하였다.

『대계』에 나타나는 여성 제보자들의 특징을 표1과 같이 정리하였다. 『대계』에 설명된 제보자 정보를 확인하여, 성별, 나이, 출생연도, 결혼 여부(결혼 시기, 사별, 재혼), 교육 여부, 전승자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기타 거주 이력 및 자녀, 직업, 종교 등의 정보가 노출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였다. 48명의 제보자 중 5명의 제보자⁸⁾는 나이, 성별, 지역, 출생연도 외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었다.

표1에 따르면 '구렁덩덩 신선비' 각 편 of 구술자는 모두 여성이다. 이들 여성 제보자는 1899-1936년 사이에 출생했으며, 따라서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왔다. 결혼에 관한 정보가 누락된 8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48명 중 40명의 제보자가 모두 결혼했으며, 이들의 결혼은 14-21세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들 중에서 비교적 일찍 사별을 경험한 자는 11번 제보자(34세 사별), 24번 제보자(23세 사별, 30대 중반에 재혼), 34번 제보자(45세 사별), 38번 제보자(35세 사별), 47번 제보자(28세 사별), 48번 제보자(30세 사별, 재혼) 등이다. 남편이 첩을 두어 고생한 제보자는 6번과 15번 제보자이다.

'구렁덩덩 신선비'의 여성 제보자들은 주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는 것으로 나타난 제보자는 9-10번, 12번, 14번, 16-17번, 35-36번, 45-48번이며 모두 12명이다. '구렁덩덩 신선비'의 채록지역을 살펴보면, 45명의 제보자가 읍면 소재지 내의 '리' 단위의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⁹⁾ 『대계』의 〈조사 마을〉에 기록된 마을 정보에 따르면, 이 지역들은 주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5개의 '리' 단위 마을의 주 생업 여부가 농업으로 명시된 곳은 31개 지역이다. 12지역은 별다른 표시가 없으나, 농업지역으로

7) 서대석, 「〈구렁덩덩신선비〉의 신화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3집(1986), 174쪽.

8) 23번 · 25번 · 28번 · 29번 · 31번 제보자.

9) 3명의 제보자가 '시' 단위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농업에 종사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보이는 곳이 8지역이다. 따라서 제보자들의 농업 종사 이력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대부분 '리' 단위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구렁덩덩 신선비'의 여성 제보자들은 농경문화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렁덩덩 신선비'의 여성 제보자들은 대부분 근교 동리로 시집을 가서 한평생 같은 마을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47번·17번 제보자는 한평생 같은 마을에 거주했으며, 5번, 7-8번, 12번, 33번, 37-38번, 43번, 45번 제보자는 시집온 후 평생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 시집온 후에 근교지역으로 이주했다고 한 경우는 3명이다. 근교 동리가 아닌 이주 경험이 드러난 경우는 7명으로, 2번·9번·19번·22번·24번·41번·48번 제보자이다. 2번 제보자는 남편의 근무지에 따라 이주 경험이 있으며, 9번 제보자는 남편을 따라 부산, 양산, 일본 등 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돌아다녔다고 한다. 19번 제보자 역시 남편을 따라 일본에 살기도 하였으며, 객지를 전전하다가 수년 뒤에 고향에 정착했다고 한다. 22번 제보자의 경우 시집온 후 신병이 생겨 무당이 되면서 본 남편과 이혼하고 후에 재혼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다. 24번 제보자의 경우 사별 후에 재혼 등의 사유로 여러 곳을 돌아다녔으며, 채록 당시에는 유일한 자식인 딸이 시집간 곳 근처에서 머물고 있었다. 41번 제보자는 국민학교 선생인 남편을 따라 이주를 경험했다. 48번 제보자는 초혼 당시 충청, 전남 지역 등으로 이주하였으나, 30세에 재혼한 후에는 현 동리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여성 제보자의 이주 경험은 결혼 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며, 결혼 후에는 남편이 선생 또는 공무원이거나 다른 지역에서 직업을 찾고자 할 때, 주로 남편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렁덩덩 신선비'의 여성 제보자들의 거주 이력이 드러난 경우는 모두 21명이며, 이 중 14명이 거의 일평생 동일 마을에 거주하거나 근교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이주 또는 타지 생활을 경험한 경우는 7명으로 결혼 상태와 남편의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여성 제보자들의 타지 생활 또는 도시 문화의 경험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제보자들은 46번 제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교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으며, 3분의 2 정도는 문맹으로 추측된다. 교육 여부에 대한

정보가 명시된 12명의 제보자 중 11명은 학교교육을 받은 바 없다고 대답하였다. 46번 제보자는 제보자들 중 유일하게 국민학교를 졸업했다고 하였는데, 유일한 40대(47세)로 ‘구렁덩덩 신선비’ 제보자들 중 제일 젊어 다른 제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교교육을 받을 기회가 조금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을 아는가에 대한 정보가 명시된 18명의 경우 10명이 문맹이었으며, 8명은 한글 또는 한자를 알았다. 한글과 한자를 모두 읽을 줄 아는 경우는 42번 제보자가 유일하며, 조부와 부친이 훈장을 한 경우이다. 국민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46번 제보자, 야학에서 글을 배운 47번 제보자를 제외하고, 글을 아는 6명의 제보자는 독학¹⁰⁾을 하거나 어머니¹¹⁾와 같은 집안의 어른 또는 남편과 같은 주변인들¹²⁾에게서 배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글을 아는지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지 않은 30명 제보자의 경우에도 문맹일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보자가 문맹인 것에 대해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 밝히기를 꺼릴 경우, 조사자들이 굳이 문맹 여부를 묻지 않거나, 알더라도 이를 명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다.

『대계』의 ‘구렁덩덩 신선비’의 제보자들은 1899-1936년에 시골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여성들로서 대부분 학교교육을 받지 못했다. 또한 시집은 후에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타지 생활의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 가부장적 제도하에서 남편을 도와 농사를 짓는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전승자 또는 전승 시기에 관한 정보가 노출된 경우는 모두 14명이다. 여성 제보자에게 ‘구렁덩덩 신선비’를 포함하여 이야기를 전승해준 자는 ‘올케’(2번 제보자), ‘중조할머니’(4번 제보자), ‘친정할머니’(5번·15번 제보자), ‘모친’(19번 제보자) 등으로 여성 제보자를 어린 시절 교육을 담당했음직한 중년 또는 노년의 여성이 많았다. 14번 제보자는 ‘어릴 때 이웃 어른이나 오빠’에게 주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으며, 27번 제보자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들었다고 하였다. 1번·7번·26번·32번·38번·40번 제보자 등은 ‘어렸을 때’, ‘자랄 때’, ‘처녀 때’, ‘고향에서’, ‘어려서’

10) 1번 제보자(문맹이었으며, 이것이 한이 되어 시집은 후 남편과 외도녀 간의 편지왕래에 자극받아 독학하여 깨우침).

11) 41번 제보자.

12) 5번 제보자(남편으로부터 한글을 배움).

들었다고 하여, 대부분 결혼하기 전에 ‘구렁덩덩 신선비’의 이야기를 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전승자가 여성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는 집안의 어른들에게서 ‘구렁덩덩 신선비’를 들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결혼 전에 들은 ‘구렁덩덩 신선비’를 몇십 년이 흐른 후 구술하는 제보자의 성별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은, ‘구렁덩덩 신선비’가 여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스키마를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 제보자의 대부분이 가부장적 농경문화 내에서 결혼 및 가족생활을 오랫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여성 제보자들이 형성해온 가부장적 사회 내에서 여성으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이 ‘구렁덩덩 신선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결혼과 가정’의 모습에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다음 III장에서는 ‘구렁덩덩 신선비’를 가부장적 농경문화를 경험한 여성에게 의미 있는 스키마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가정을 꾸리는 여성으로서의 역할과 결혼생활에 관한 스크립트로서 그 의미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III. ‘구렁덩덩 신선비’에 나타나는 여성의 스키마

『대계』의 채록 시기는 1979-1984년 사이이며, ‘구렁덩덩 신선비’의 여성 제보자들은 1899-1936년 사이에 태어났다. ‘구렁덩덩 신선비’를 결혼 전 여성에게 전승된 이야기로 전제할 때, 1900-1950년대 사이에 이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추정된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일제 강점기와 50-70년대를 살아오면서 문자문화보다는 구술문화에 익숙하며, 타지 경험이 제한되고 남편의 결정에 따라 삶이 좌우되는 폐쇄적이면서 가부장적인 농경문화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스키마는 대응하고 경험하는 사회적 환경 및 문화 등을 통해 형성된다. 이러한 가부장적 농경문화에서 형성된 여성의 스키마가 ‘구렁덩덩 신선비’의 이야기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이 글에서는 ‘구렁덩덩 신선비’의 공동의 서사 단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① 나이 많은 할머니가 구렁이를 낳는다.

- ② 이웃 장자집의 세 딸이 구령이를 보러 왔는데, 두 언니는 '구령이'를 징그럽게 여기지만, 셋째 딸은 '구령덩덩 신선비'를 낳았다고 한다.
- ③ 구령이는 장자집 셋째 딸과의 결혼을 요구한다.
- ④ 장자집 셋째 딸이 이를 허락하고 구령이는 옥골선풍의 선비로 변하여 결혼을 한다.
- ⑤ 구령이 신랑은 셋째 딸에게 구령이 허물을 잘 보관하라고 하며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간다.
- ⑥ 셋째 딸의 언니들이 구령이 허물을 빼앗아 불에 넣어 태워버리자, 구령이 신랑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 ⑦ 셋째 딸은 구령이 신랑을 찾으러 떠나면서 여러 가지 탐색과정을 거친다.
- ⑧ 셋째 딸은 구령이 신랑과 재회하지만, 구령이 신랑은 이미 다른 부인을 얻어 생활하고 있다.
- ⑨ 구령이 신랑은 부인 둘에게 경합을 시키고, 셋째 딸은 경합에서 이기고 구령이 신랑과 부부가 되어 잘 살게 된다.

망각에 의한 생략¹³⁾, 이야기의 변이¹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령덩덩 신선비'의 대부분의 여성 제보자들은 간략화되는 경우는 있어도 ①-⑨의 서사 단락에 대해 빠트리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다. 위의 서사 단락은 서대석이 정리한 부분¹⁵⁾과 '망각'과 '생략' 및 '변이'에 의한 각 편들을 제외하고, 가장 원형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각 편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주로 참고한 각 편은 <구령이 신랑>(『8-11』, 440-446쪽), <뱀신랑과 열녀 부인>(『8-7』, 638-645쪽), <구령덩덩 신선비>(『1-9』, 200-205쪽), <구령 선비>(『8-10』, 597-606쪽), <구령덩덩 소선비>(『4-5』, 355-362쪽),

13) 1번·16번·18번·25번·28번·29번·36번·34번·40번·48번 제보자의 이야기는 두 언니가 구령이 신랑의 허물을 태웠다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셋째 딸의 탐색과 경합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으며, 구연 맥락을 살펴보면 대부분 망각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냥 채이니까 그 년도 거기서 벼락 맞아 죽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 빠졌다고 같이 동거 못하고 성공 못했어. 그라고 그것이 끝이야.(28번 제보자)

처질러뿌린개 그 뱀새가 서울까지 갔대. 그래갖구 나왔는데 그 뒤로 나 잊어버렸어.(40번 제보자)

14) 46번 제보자의 이야기는 셋째 딸 언니들의 계략으로 죽어, '연꽃 → 술 → 구슬' 등으로 환생했다고 이야기를 변이시키고 있다(<옥골남자로 변한 구령이>, 『6-7』, 49-56쪽).

15) 서대석, 앞의 논문, 175-183쪽.

〈구렁덩덩 신선비〉(『5-7』, 174-182쪽), 〈뱀서방〉(『7-6』, 578-588쪽)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공통의 서사 단락을 구성하였다. 이들의 각 편은 비교적 상세하고 앞뒤 문맥의 연결이 자연스럽다.

위 서사 단락 중에서 ⑦, ⑨는 양적인 면에서 전체 서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⑦단락은 탐색과정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이 셋째 딸에게 여러 가지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이야기의 분량이 증가하게 된다. ⑨단락 역시 셋째 딸이 전처로서 후처와 경합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 과제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야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뛰어난 구술 능력을 가진 제보자일수록 ⑦, ⑨ 단락의 내용을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셋째 딸이 어떻게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⑦, ⑨ 단락에서 유사한 성격의 과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⑦단락의 탐색과정에서 셋째 딸은 구렁이 신랑의 행방을 찾기 위해 길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이 요구하는 일을 해주고, 그들이 가르쳐준 방향을 따라 구렁이 신랑의 집을 찾아간다. 셋째 딸이 만나는 이들에게 빨래하는 여인, 까치(까마귀)¹⁶⁾, 멧돼지, 논을 가는 농부, 밭을 가는 농부 등이 있다. 셋째 딸과 이들이 만나는 순서는 각 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⑨단락에서는 셋째 딸이 구렁이 신랑의 새로 맞은 부인과 경합을 치르는 과정을 보여준다. 보통 물 길어 오기, 호랑이 눈썹 빼 오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⑦단락의 탐색과정과 ⑨단락의 경합과정은 셋째 딸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여성으로서 그 능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빨래하는 여인의 경우는 셋째 딸에게 흰 빨래를 검게 만들고, 검은 빨래를 희게 만드는 것을 요구한다. 검은 빨래를 흰 빨래로 하는 것은 ‘깨끗이’ 한다는 의미가 있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흰 빨래를 검은 빨래로 만드는 것에는 깨끗이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를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구렁덩덩 신선비’에서 검은 것을 희게 하고 흰 것을 검게 하는 빨래하기에 대하여, 여성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정화 작용으로 보는 해석이 있다.¹⁷⁾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 약자로 살아오면서 여성의 무의식에 있는 남성적 요소,

16) 까치(3번, 11번, 12번, 31번 제보자), 까마귀(45번 제보자).

17) 이나미, 『음, 호랑이 탄 한국인과 놀다』(민음인, 2010), 94쪽.

즉 아니무스에 의해 열등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기 쉽다고 한다.¹⁸⁾ 흔히 이분법적 사고를 흑백 논리에 의한 사고라고 부르기도 한다. 흑이 백이 되기도 하고 백이 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때,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검은 빨래를 흰 빨래로, 흰 빨래를 검은 빨래로 만든다는 것을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도 설명할 수 있다. 검은색은 음을, 흰색은 양을 나타낸다. 음양은 여성과 남성을 상징하기도 하며, 천지만물의 생멸과 변화를 설명하기도 한다. 따라서 검은색을 흰색으로 흰색을 검은색으로 바꾸는 것은 음과 양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로운 결합을 의미한다. 음 또는 양의 어느 하나만으로는 천지만물이 생성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 역시 남녀의 조화 없이는 성공적인 가정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빨래하기는 성혼으로 인한 남녀의 결합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까치(까마귀)와 관련된 행위이다. 까치(까마귀)는 새끼를 키워주기를 요구하거나 벌레와 같은 먹이를 물어 와달라고 한다. 새를 키우는 것은 자식을 키우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세 번째로 논 혹은 받기는 농부는 셋째 딸에게 논이나 밭을 갈아달라고 요구한다. 논이나 밭을 가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특히 '남성이 셋째 딸에게 논이나 밭을 대신 갈아주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을 보조하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딸이 구렁이 신랑과 재회하기 위해 필요한 위 세 가지 과제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빨래하기 혹은 남녀의 조화로움, 자식을 양육하는 것, 농경사회에서의 여성의 보조적 위치 등으로,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가부장적 가족 질서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딸이 구렁이 신랑과 재회한 후에는 후처와 경합을 하게 된다. 시험의 종류는 높은 나막신 신고 물 기르기, 호랑이 눈썹 빼 오기 등이 있다. 호랑이 눈썹 빼 오기 화소는 부부의 인연과 관계가 있다. '호랑이 눈썹 설화'에서 '호랑이 눈썹'은 전생을 보거나 사람의 본질을 볼 수

18) 위의 책, 94쪽.

있는 도구로 나타난다.¹⁹⁾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해서 시는데 항상 가난하여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다가 호랑이 눈썹을 구하게 되고 그 눈썹을 눈에 대고 보니 부인이 암탉으로 보인다. 마침 집에 어느 부부가 손님으로 왔는데, 호랑이 눈썹으로 보니 그 부부의 남편은 수탉이며, 아내는 사람으로 보였다. 그래서 부부를 서로 바꾸자고 제안했고 바꾸고 나니 모두가 잘 살게 되었다고 한다. 셋째 딸이 호랑이 눈썹을 구해서 '구렁이 신랑의 망건을 달아준다는 것'은 셋째 딸이 구렁이 신랑에게 자신이 진정한 짝임을 확인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다. 대부분의 각 편에서 '호랑이 눈썹 빼 오기'는 마지막에 치르는 경합으로 나타나는데, 남편에게 아내로서 정체성을 인정받는 것이 셋째 딸이 거쳐 온 탐색과 경합과정의 최종적 목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구렁덩덩 신선비'의 서사를 가부장적 사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렁덩덩 신선비'에는 가부장적 사회 내에서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집안일을 능숙하게 해내야 하는 여성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 여러 가지 집안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여성상의 표출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아온 여성 제보자들이 형성해온 스키마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V. '구렁덩덩 신선비'에 나타나는 여성의 상흔

윌터 옹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를 구별하면서 구술문화를 공유하는 자들은 정보 또는 지식을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해 생활과 밀접하며²⁰⁾ 감정이입적²¹⁾인 구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즉, 여성 제보자들은 '구렁덩덩 신선비'에서 여성의 결혼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구술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체험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노출하게 되며, 등장인물의 삶과 동일시하면서 친근감 또는 적대감 등의 감정을 드러내게 된다.

19)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2』(2012), 797-798쪽.

20) 윌터 J. 옹, 이기우·임명진 옮김, 앞의 책, 71쪽.

21) 위의 책, 76쪽.

문학치료학에서는 서사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작품의 기저에서 작품을 구현하는 서사를 ‘작품서사’로, 개인의 인생을 구현하는 내면의 서사를 ‘자기서사’로 구별한다.²²⁾ 문학치료학에서의 작품서사와 자기서사 개념을 적용해보면, ‘구렁덩덩 신선비’ 서사 줄거리의 기저에 있는 의식세계는 작품서사, 구술과정에 개인적 체험이 녹아나는 부분은 자기서사라고 볼 수 있다. 즉, III장에서 살펴본 ‘구렁덩덩 신선비’의 서사 단락에서 알아본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스키마를 작품서사로 본다면, IV장에서의 발견한 여성의 상흔은 개인적 경험에서 노출된 것으로 자기서사에 해당하며, 가부장적 사회 내에서 여성이 겪은 질곡과 아픔을 외재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보자 개인의 체험에 따라 작품서사와 자기서사의 거리는 다르며, 서사의 구성은 크게 변하지 않아도 구체적 표현은 달라질 수 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의 시기를 겪어온 여성들의 삶은 그리 녹록한 것이 아니었으며, 특히 가부장제도하에서 남성 중심의 가정생활을 경험했던 제보자들의 크고 작은 상흔이 나타나고 있다. 아래에서 사별로 인한 고생스러움, 자매 및 시누이와의 갈등, 축첩제로 인한 아픔 등을 중심으로 여성 제보자들의 상흔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별로 인한 상흔

비교적 일찍 사별한 ‘구렁덩덩 신선비’의 여성 제보자의 경우 ‘구렁이를 낳은’ 과부에 대한 동일시를 보여주고 있다.

옛날에 늙은이가 날매이로(나처럼) 참 고생시리 살았던 기라. 그레 산에 나무하러 간께네 덤불 밑에 이런 알이 한 개 있는기라. 그놈을 주우가 삶아 무웠다네.

(11번 제보자, <구렁이 신랑>, 『8-11』, 440쪽)

<구렁이 신랑>의 11번 제보자는 34세에 사별하였는데, 힘들고 어렵게 생활을 영위한 듯하다. 제보자는 ‘날매이로(나처럼)’라는 표현을 통해 구렁이를 낳은 이에게 동일시를 하여, 가난하여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뱀 알을 먹었다는 듯이 구술하고 있다. ‘구렁덩덩 신선비’의 대부분 각

22)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2008), 250쪽.

편²³⁾에서 ‘구렁이를 낳은 이’인 할머니는 남편 없이 혼자 등장한다. 늙은 과부 혹은 가난하고 늙은 할머니의 이미지는 대부분 60-80세에 이르는 제보자들의 모습과 비슷하며, 남편과 사별한 제보자의 경우 ‘구렁이를 낳은 이’에 대한 강한 동일시 양상이 나타난다.

“자기는 아무리 권세가 좋고 하지마는 내하고는 상대가 안되어 친정에 돌아가리라. 평생 멀길 대줄터이 친정으로 가라.” 그래 그 엷은 재주택일라 그거는 칩 택이지. 그래 평생 먹을 걸 대지. 그 본처를 데루고 그래 인제 새미풍각을 째히고 그 부인은 쌍가매를 타고, 양반은 인제 풍각을 째히고 시골로 내려오이, 그 구리 낳은 어마이가 참 숫구대비(수수깡) 옴막집이고 머머 기드카고 기 나가고 살드래. 그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 가가주 그르름 잘 살드라네.

(19번 제보자, <뱀서방>, 『7-6』, 588쪽)

이 부분은 각 편 <뱀서방>(19번 제보자)의 결말 부분으로, ‘구렁덩덩 신선비’의 전형적인 결말에 추가된 것이다. 구렁이 신랑 부부가 구렁이 신랑을 낳은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 와서 잘 살았다고 한다. 여기에는 은연중에 늙고 혼자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도리이며, 행복한 결말의 끝이라는 제보자의 의식이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각 편 <뱀서방>의 19번 제보자 역시 남편과 일찍 사별하였는데, 제보자가 ‘입지전적으로 성공한 자식’인 구렁이를 낳은 늙은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고생했던 시절을 보상받고 싶은 개인적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즈그매한테[...] “그래 저 방 온 저 사람이 내가 전천데, 처음 장개 든 사람인데, 내가 후처 장궤 가가 되겠다?” 기어이 그래도 안 된다고. 막 거따가 “내기로 맺어가지고 산 범 눈썹을 가 오면 저 쭈(쭈) 저 집 각시하고, 이 집 이거 각시하고 산 범 눈썹을 구해 가 오면 며느리 할께고 못 구해가 오면 안할 끼라.”

(11번 제보자, <구렁이 신랑>, 『8-11』, 446쪽)

<구렁이 신랑>의 11번 제보자는 ‘시어머니’를 셋째 딸과 후처 사이의 경합을 주관하는 자로 설정한다. 이 부분은 ‘구렁덩덩 신선비’의 원형에

23) 대부분이 늙은 과부 또는 가난하고 늙은 할머니로 표현되지만, 각 편에 따라 부부로 표현되기도 한다. 각 편 <뱀신랑과 열녀 부인>(『8-7』, 638쪽)에서는 ‘부부’로 확실히 표현되고 있다. 각 편 <구렁이 자식>(『6-11』, 627쪽)에서는 ‘즈그 부모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없는 것이며, 보통 '구렁덩덩 신선비'의 각 편에서 경합의 주관자는 구렁이 신랑으로 나타난다. 11번 제보자 역시 일찍 사별하였는데, 구렁이 신랑의 역할이 축소되고 시어머니의 비중이 강화되는 부분에서 제보자의 결혼생활에서 남편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다. 제보자가 한 사람의 아내보다는 '며느리'로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자매 및 시누이와의 갈등관계

⑥ 서사 단락을 살펴보면 셋째 딸은 친정의 두 언니에게 구렁이 신랑의 허물을 빼앗기게 된다. 두 언니에게 빼앗긴 허물은 태워지고 이로 인해 구렁이 신랑과 결별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 '구렁이 신랑'의 여성 제보자들은 여주인공의 두 언니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보여준다.

형이란 년들이 용심을 놓아요. 용심을 노는데 고걸 장 저구리 짓고뎀 따고 고평여가주 뎡깃는데, 한분 머리 감는다고 저구질 벗어났지만은 형이란 년이 고걸 알고 우에 따가주 고걸 고만 사랏뿌렀네. 사이게 비슬 해가주 니리오는데 고만 거 노랑내가 거 서울, 니리오는데 올라가서, 고게서 고만 살모시 사라졌뿌더라네. (청중: 아이고 딱하지.) 형이란 년이 그래고마.

(13번 제보자, <뱀신랑>, 『7-15』, 144쪽)

아이 죽일놈의 성년들이 하두 이쁘고 선비가 좋게 되어 브린게로는 인자 욕심이 나가고는 그놈 잊어보린다고. 그놈을 물통에다 넘겨놓고는 이를 잡어주면서름 그놈 구렁이 꺾테기를 끄슬러 놔브렀네.

(21번 제보자, <구렁덩덩 신선비>, 『6-8』, 731쪽)

그래 아이 역시 같은 놈의 즈그 성들이 밤에 그 옛을 다 들었네.

(38번 제보자, <구렁덩덩 시선부>, 『5-6』, 756쪽)

위 각 편²⁴⁾에서 보이는 제보자들의 셋째 딸의 두 언니에 대한 적대감은

24) 제보자들의 두 언니에 대한 적대감은 본문의 경우 외에도 아래와 같이 다양하다. 요놈의 언니 가스나들이 우에 한번 낮 싸을 때 동정 속을 따 가지고 두 언니가 불살라뻘어. (<뱀신랑의 슬픈 운명>, 『7-5』, 45쪽)

그 큰 딸네들 좋은 디로 다 여워서 다 여워서 좋게 하고, 인자 모도 끼릿 끼릿하여 잘 사는데 어찌 참 성네들 언니들 돌이가 즈그 동생을 미워하고 '그랄 때 니가 안 갈란다.' 했으면 될 것인데, '니가 갈란다. 함께 니놈이 회생이 안 되었냐?' 그리고

‘년’, ‘죽일놈의 성년들’, ‘여시 같은’, ‘요놈의 언니 가스나들’²⁵⁾과 같은 표현 등에서 나타난다. 셋째 딸의 두 언니가 구렁이 신랑의 허물을 빼앗는 행동은 공격적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것으로 표현된다. 셋째 딸의 언니는 팔죽을 끓여 뜨겁다고 호들갑을 떨며, 동생이 팔죽을 들게 한다. 이렇게 동생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구렁이 허물을 강탈한다. 때로는 찢지도 않는다고 더럽다고 구박하고는, 감시하고 있다 가 셋째 딸이 머리 감는 틈을 타서 구렁이 허물을 빼앗아 태워버리는 행동을 보여준다.

카렌 호니(Karen Horney)에 따르면 여성들은 자라면서 손위의 자매들에게 반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²⁶⁾ 어릴 적 어머니나 언니가 남성과 관계 맺는 것을 억압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어머니나 언니에게 ‘어리다’ 또는 ‘매력적이지 못하다’ 등의 소리를 들은 기억이 있는 여성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생긴다고 한다. 특히 언니들은 여동생보다 나은 신체적 힘과 지적 능력으로 여동생을 위협하거나 매력을 가지기 위한 여동생의 노력을 업신여겨 동생을 종속시키는 경우도 있다.

‘구렁덩덩 신선비’의 두 언니와 셋째 딸의 관계는 여성이 손위 자매들에게 가지는 반감과 경쟁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두 언니는 ‘구렁이’를 최초 목격하고 나서 ‘더럽다’ 혹은 ‘징그럽다’고 표현한다. 또한 아버지가 구렁이에게 시집갈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귀하게 키운 딸을 구렁이에게 어떻게 시집보낼 수 있냐고 반문한다. 두 언니는 구렁이에게 시집가겠다는 셋째 딸을 구박하기도 한다. 언니들의 반응은 구렁이에게 시집가겠다는 셋째 딸보다 오히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그러나 구렁이 신랑이 흰칠하게 변하자 여동생을 질투한 언니들은 힘으로 억누르거나 또는 비열한 방법으로 속여서 여동생에게서 구렁이 허물을 빼앗아 태우고, 여동생을 자신들에게 종속시키려고 한다. 이런 경우 여동생에게는 질투

미워한다 못 살게 정도로 고생을 하고 사는데.

(《구렁이에 시집간 막내딸》, 『6-1』, 425쪽.)

조 년들 두 년이 다 들었어. 다 보고 아, 이기 그러구로 신랑이 고마 밤에 참 떠나고 없는데, 저고리 입고 머리 감으면 저고리 입고 머리 감는다고 지랄로 하고, 저고리 안 벗고 머리 감는다고 쌍고 이래도 지가 따악 결심하고 있는데, 어디서 한 번 마 있는데, 좀 있으면 두 년이 달라들어서 저고리를 확 뜯어 뺏기 뿌리. 뺏기 가 그만 따아가 그걸 불어 열었다 말이다.(《구렁이 신랑》, 『8-11』, 442쪽.)

25) 24번 각주 참조.

26) 카렌 호니 저, 이근후·이동원 공역, 『여성심리학』(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9), 219쪽.

심 많은 언니에 대한 원한과 자신도 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경쟁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²⁷⁾ ‘구렁덩덩 신선비’에서 동생을 종속시키려는 언니들의 행위는 결국 셋째 딸이 독립심을 가지고 ‘구렁이 신랑을 찾아’ 나서게 만든다.

큰언니가, “나 죽겠다. 뜨거뜨거 풀죽 풀죽, 뜨거뜨거 풀죽풀죽.” 그렇게 문을 열어 준께, 갖다 준 밥이나 묵은 사람이라 문을 열어 준께는, 그러면 자빠져갖고 뽕보(곰보)가 돼부렀어, 큰언니가. 응 곰보가 돼부렀어.

(24번 제보자, <뽕서방>, 『6-5』, 158쪽)

‘구렁덩덩 신선비’의 24번 제보자는 구렁이 허물을 빼앗으려고 간계를 부린 언니가 곰보가 되었다고 함으로써 복수하여 반감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인저 한 날은 사춘 시누가 오더니 엿저녁에 언니 저기 구렁이하고 잔 저기 좀 보자구 그러면서 그냥 들구 옷을 벗기고 난리더래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만자다가 ‘부스럭 부스럭’ 거리니까, 뽕 껍데기를 뭐 하나고 갖다 아궁지에 넣고 불을 살렸대요.

(4번 제보자, <구렁덩덩 신선비>, 『1-9』, 202쪽)

과개를 갖는데, 그래 인제 고걸 시누가 봤단 말이라. 고 요따 쪽 넣어 주는 거를, 시누가. 아무도 보이지 마라 키는 거를. 고만 막 간질러가이고 막 고걸 파냈다 말이라. 파내가이고, 뽕을라카는 걸 화롯불에다 담박 집어 넣었어. 그래가이고 고만 그 냄새가 그 과개 보는 데까정 가드래어.

(16번 제보자, <구렁이 선비>, 『7-8』, 556쪽)

위 각 편 <구렁덩덩 신선비>(4번 제보자)에는 셋째 딸의 언니가 ‘사춘 시누’로 표현되어 있다. 각 편 <구렁이 선비>(16번 제보자)에서는 두 언니가 ‘시누’로 표현되어 있다. 이 표현은 제보자의 개인적 경험이 노출된 부분으로, 두 언니에 대한 적대감이 자연스럽게 시집 식구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어지는 연상 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편 <구렁이 선비>의 16번 제보자는 시집살이 노래를 거의 정확하게 구연할²⁸⁾ 정도로 시집살이에 남다른 애환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또한 조사자는 구연

27) 위의 책, 219쪽.

28) <구렁이 선비>, 『7-8』, 506쪽.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여자 청자들이 시누이의 심술에 대해 혀를 차기도 하면서 공감의 반응을 보여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⁹⁾

은가락지를 인자 열 손꾸락에다 찢어. 망네 딸이 있는 사람(부자)딸이라 뇌서 다 찢는가. 갔는디, 음. 남편 찾아서 서울을 가. 갔는디 인자 이 구렁이 그 동상이 하는 소리가- 가을에 갔는디, 새 날김시로 하루에 한 자리씩만 하라고 그래 즈그 오빠가. 여러 자리는 하지 말고.

“아랫넛 새야 옷넛 새야, 휘-, 아랫넛 새야 옷넛 새야 오늘날 까묵고 내일은 까묵지 마라. 삼사 탕구렁이 우리 오빠 장개가면 찰떡 치고 모떡 칠란다. 휘-” [...] “가락지 이눔 주께 해주라. 이눔 주께 해주라. 이눔 주께 해주라.” 인자 열 손꾸락 다 준단하드라우. 그랑께 열 손꾸락 다 준단한께는, “그러라.””

(24번 제보자, <뱀서방>, 『6-5』, 158-159쪽)

“우리 구렁덩덩 시신 오라버니가 하리 시 번씩만 허락했어라우.”

“아이그 이 사람아 내가 가락지 한 짝 빼줄 것이니 한 번 더 히보서.”

(35번 제보자, <구렁덩덩 신선비>, 『5-7』, 179쪽)

“우여라, 우여라. 허어이. 이눔으 새야. 윗 논이루 갈 테면 윗 논이루 가구 아랫 논이루 갈 테면 아랫 논이루. 우리 구렁덩덩 소선비 오라버니 장가갈 때 찰떡 찌꾸 메떡 찌서 옷 논이다 한 덩어리 아랫 논이 한 덩어리 던져줄 탱개 가라.” [...] “내 은가락지 벗어 줄 테니 해보라.”구

(45번 제보자, <구렁덩덩 소선비>, 『4-5』, 359쪽)

위 각 편의 경우처럼 ‘구렁덩덩 신선비’의 ‘새 보는 아이’는 구렁이 신랑의 여동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각 편 <뱀서방>(24번 제보자)의 ‘새 보는 아이’는 은가락지를 받고 구렁이 신랑에 대한 정보를 발설한다. 그리고 각 편 <구렁덩덩 신선비>(35번 제보자)에서도 역시 ‘가락지’를 받고 구렁이 신랑에 대한 정보를 말해준다. 셋째 딸의 탐색과정에서 나타나는 조력자들은 일정한 과제를 부여하고 셋째 딸의 공력(功力)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새 보는 아이’의 경우 일정한 금품을 받고 노래를 해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시누이’에 대한 제보자들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물질적 욕망을 가진 인물로 ‘시누이’를 표현하고 있다. 탐욕스러운 시누이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의 대중 드라마

29) <구렁이 선비>, 『7-8』, 555쪽.

등에서도 종종 관찰되는 것으로 전형적이라고 볼 수 있다.

3. 축첩제로 인한 상흔

‘구렁덩덩 신선비’는 남성의 다혼(多昏)을 정당화하는 요소를 담고 있다. 셋째 딸이 금기를 지키지 못한 것이 구렁이 신랑의 또 다른 결혼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일부일처제의 부부관계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가부장적 제도하에 첩(妾)제를 인정해왔다.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권력 있고 부유한 사대부 집안에서 남성이 여러 처첩을 거느리는 것은 전혀 흠이 될 만한 요소가 아니었으며, 여러 처첩으로 인해 생긴 갈등의 해결은 여성들의 몫이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도 한국인은 전근대적인 처첩제의 관행을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1950-1960년대에 이르러 한국의 여성 운동가들은 축첩제도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쳤고, 첩계약이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³⁰⁾을 시작으로 사회와 여성들의 인식도 점차 변화되었다.

큰어머니는, “나막끼를 신고 물을 하나 까뜩 여고서는 인제 한방울도 쏟지 말고 오라.” 겐고. 또 서울서로 장개든 사람은 인제, “고무신을 신고 인제 물을 여고 오라.” 겐고 이리는데, 큰어머이는 나막끼를 신고 물을 하나 까뜩 여와도 한 개도 안 쏟아졌는데, 작은어머이는 고무신을 신고 물을 하나 까뜩 열지도 안했는데 그누무 물이 풀렁풀렁 다쏟아졌다 이기라. 그래서 또 이제 파이했뿌리고. 그래 큰어머이를 또 인자, “산 범눈썹을 뽑아 오라.” 겐는 기라. 또 작은어머이는 인제, “산 고네이(고양이) 눈썹을 뽑아 오라.” [...]

그래서 인자 할 수 없어서리 큰어머이, 작은어머이 다 디리고 살아가지고 낸제는 머 참 잘 살다 죽었지.

(6번 제보자, <뱀신랑>, 『8-5』, 53-54쪽)

각 편 <뱀신랑>의 6번 제보자는 전처와 후처를 각각 ‘큰어머니(이)’와 ‘작은어머니(이)’로 표현하고 있으며, ‘큰어머이, 작은어머이 다 디리고 살아가지고’라고 구술하고 있다. 각 편 <뱀신랑>의 제보자는 남편이 후처와 살림을 함으로써 남편과 떨어져 생활하였으며, 채록 당시 남편과 사별하고 큰아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³¹⁾ 제보자가 전처와 후처를

30) 대법원 1955.07.14. 선고 4288민상156판결

각각 ‘큰어머니(이)’와 ‘작은어머니(이)’로 표현한 부분은 전처와 후처를 가족관계로 인식한 상태에서 서술한 것으로, 남편으로 인해 후처와 가족 관계에 있었던 제보자의 체험이 노출되고 있다.

각 편 〈뱀신랑〉(6번 제보자)은 큰어머니는 ‘나막깨’를, 작은어머니는 ‘고무신’을 신으며, 큰어머니는 ‘범눈썹’을, 작은어머니는 ‘고양이 눈썹’을 뽑아 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6번 제보자는 전처에게는 과중하고 어려운 과제가, 후처에게는 상대적으로 쉬운 과제가 부여되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전처가 모든 과제를 훌륭히 수행하였음에도 ‘할 수 없어서라’ 다 데리고 살았다는 부가적 수식어를 통해, 후처로 인해 고통 받은 제보자의 서러움이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랑을 찾아가주 그래 찾아가주고설랑 그래 어떻게 했노 하면, 그제 신랑을 찾아가주, “범의 눈썹을 세낱을 구해라.”

(큰 소리로) 그래 자! 여자가 둘이 나섰으이 어떻게 하니껴? (본래 소리로) 큰 어머니가 각시 찾아 (말을 바꾸어서) 신랑 찾아 왔지! 작은어머니 그 집에서 또 잔채 해서, 작은어머니 그 잔채보러 가자 하디, 참 잔채를 해가주! 참 작은어머니 있지. 그리이, 두 어마이 아이래요? 큰어마이를 데리고 사나, 작은어마이를 데리고 사나? 이게 두 가지 문제래. “큰어머니는 범을 눈썹 시 개만 구해라. 작은어머니는, 저게 위대 가동지 설달에 딸(딸기)을 시 개만 따가주 오너라.” [...]

가이 아직 작은어머(마)이는 저게 딸을 시 개를 못 따고 앉았고, 이거는 범의 눈썹을 구했그던.(청중: 어테가 딸을 따노?) (큰 소리로) 작은어머니는 저게 딸을 시 개를 못 따고 앉았고, 이거는 범의 눈썹을 구했그던.(청중: 어테가 딸을 따노?) (큰 소리로) 작은어머니 내던지고 (본래 소리로) 큰어마이만 데리고 살게 돼. 그렇게 참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 그래.

(15번 제보자, 〈뱀 아들의 결혼〉, 『7-10』, 638-640쪽)

위 각 편 〈뱀 아들의 결혼〉의 15번 제보자는 남편이 자신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본 후에 탄살림을 차렸기 때문에, 거의 혼자 살다시피 했다고 한다.³²⁾ 15번 제보자도 6번 제보자와 같이 전처와 후처 사이를 ‘큰어머니(이)’, ‘작은어머(마)이’의 가족관계로 표현하여 제보자의 개인적 경험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전처와 후처가 각기 다른 과제를 부여받는 것도 원래의 이야기에서 변형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청중 한 명이

31) 〈거창읍 제보자 1〉, 『8-5』, 26쪽.

32) 〈소천면 제보자 10〉, 『7-10』, 552쪽.

‘어데가 딸(딸기)을 따노?’라고 계속 개입하지만 제보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청중은 동지선달에 딸기를 구하는 것을 매우 어려운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제보자는 ‘가이 아직 작은 어머니는 저게 딸을 시 개를 못 따고 앉았고, 이거는 범의 눈썹을 구했그던’이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후처의 실패에 대해 ‘한심하다’는 투로 이야기하고 있다. 덧붙여 ‘큰 소리’로 ‘작은 어마이’를 ‘내던지고’ 다시 ‘본래 목소리’로 큰 어마이를 데리고 산다고 구술한다. 작은 어머니를 ‘내던진다’고 표현한 부분에는 후처에 대한 적대감이 드러나고 있으며, 전처와 신랑이 같이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현실이 아닌, 환상의 세계에서나마 행복한 결말을 이루고자 하는 제보자의 소망이 드러난다.

또한 ‘구렁덩딩 신선비’의 여성 제보자들은 결말 부분을 구술하는 과정에서, 후처를 부족하거나 악독하게 묘사하고, 구렁이 신랑이 후처를 거부하는 부분을 강조하여 표현함으로써 축첩제에 대한 상흔과 자신들의 소망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다.

두말 없이 그 늬을(작은 아내) 돌려 보내 빼리고, 그래 그 본 마느래로 데리고, 참 의기양양하게 삼정승 육판서를 여자가 놓고 잘 살더란다.

(7번 제보자, <뱀신랑과 열녀 부인>, 『8-7』, 645쪽)

그래 장개를 갔는데, 이눔우 여자가 얹고 겹고 박색이래. 마 얹고 겹고 박색이래. [...] 이눔의 얹어빠진 재추택이는 그 중에 늦동우를 가주고 이는데, 가며 출렁출렁 쏟았부고, 오머 출렁 쏟았부고. (청중: 그 정승의 딸은 포시럽게 커기주고 호의호식하고 이래놓이) [...] “자기는 아무리 권세가 좋고 하지마는 내하고는 상대가 안되어 친정에 돌아가그라. 평생 멀걸 대줄터이 친정으로 가라.” 그래 그 얹은 재추택일라 그거는 첩 택이지. 그래 평생 먹을 걸 대지. 그 본처를 데우고 그래 인제 새미풍각을 짚히고 그 부인은 쌍가매를 타고.

(19번 제보자, <뱀서방>, 『7-6』, 586-588쪽)

작은 어마이 내던지고 큰 어마이만 데리고 살게 돼. 그렇게 참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 그래.

(15번 제보자, <뱀 아들의 결혼>, 『7-10』, 640쪽)

그래서 첩년은 여우스럽다고 내쫓고 큰 마누랄 데리고 살더랭. 그래설랑 고생을 그렇게 했다.

(3번 제보자, <구렁덩딩 신선비>, 『1-9』, 460쪽)

위 각 편의 제보자들은 ‘그 늪을(작은 아내는) 둘러보내 빠리고’, ‘작은 어마이 내던지고’, ‘첩년은 여우스럽다고 내쫓고’ 등의 표현을 통해 구렁이 신랑이 후처를 거부하는 장면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더 나아가 7번 제보자는 전처로 인해 구렁이 신랑이 삼정승 육판서를 했다고 함으로써 전처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19번 제보자는 재취택을 ‘엷고 검고 박색’이며, 정승의 딸로 호의호식하고 커서 일을 할 줄 모른다고 깎아내리고 있다. 반면에 본처는 ‘새미풍각을 짹히고 쌍가매를 타고’로 표현함으로써 전처의 고생에 대한 보상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3번 제보자는 ‘첩년은 여우스럽다고 내쫓고’라고 표현하고 있어 후처의 조롱을 참고 살아야 했던 전처의 고생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를 살아온 여성 제보자들에게 ‘구렁덩덩 신선비’라는 ‘이야기’는 그들의 무의식 속에 억압된 상흔을 표출하기에 훌륭한 매개가 된다. ‘구렁덩덩 신선비’라는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별로 인한 고생스러움, 시누이와의 갈등, 축첩제로 인한 고통 등의 상흔을 노출시킬 수 있으며,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했던 아픔이 표출되면서 부정적 감정이 소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야기관을 통해서 청중의 동의를 얻는 경우,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지받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에서 ‘구렁덩덩 신선비’에 나타나는 여성의 스키마와 여성 제보자의 개인적 체험과 관련한 그 상흔을 살펴보았다. 현재에 의미가 있는 것이 구전될 수 있다는 구술성에 비추어볼 때 ‘구렁덩덩 신선비’의 제보자가 모두 여성이라는 점은 ‘구렁덩덩 신선비’를 여성의 입장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제보자 정보에 입각하여 우선 ‘구렁덩덩 신선비’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성의 스키마를 전하는 스크립트로 해석하였다. 그 결과 가부장적 사회 내에서 집안일에 능숙하여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의 정체성에 관한 여성의 스키마를 확인하였다. 또한 구술하는 과정에서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사회를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성의 상흔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도 관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찍 사별하여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온 경우의 보상 심리, 언니 또는 시누이와의 갈등관계와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축첩제도로 인한 후처에 대한 적대감과 보상 심리 등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이야기의 치료적 효과에 집중하여 제보자의 의식세계를 고찰하는 것은, 설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2』. 2012.
- 나병철, 『소설과 서사문화』. 소명, 2006.
- 서대석, 「〈구렁덩덩신선비〉의 신화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3집, 1986.
- 윌터 J. 옹 저, 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14.
- 유강하, 「스토리텔링과 리텔링」. 『중국소설논총』 31, 2010.
- 이나미, 『음, 호랑이 탄 한국인과 놀다』. 민음인, 2010.
-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 최혜실, 『스토리텔링, 그 매혹의 과학』. 한울아카데미, 2011.
- 카렌 호니 저, 이근후·이동원 공역, 『여성심리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1-82, 1979-1988.

국 문 요 약

이 글에서는 구비 설화인 ‘구렁덩덩 신선비’에 나타나는 여성의 의식세계를 관찰하였다. 연구 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채록한 48편의 각 편과 제보자 정보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각 편 48편의 제보자 성별은 모두 여성이다. 이 글에서는 ‘구렁덩덩 신선비’의 제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구렁덩덩 신선비’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스키마와 상흔을 분석하였다. ‘구렁덩덩 신선비’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성의 스키마에 관한 스크립트로서 해석하여,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여성의 스키마를 확인하였다. 또한 ‘구렁덩덩 신선비’를 구술하는 과정에서,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사회를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성의 상흔이 어떻게 표출되는지도 관찰하였다. 일찍 사별하여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온 경우의 보상 심리, 언니 또는 시누이와의 갈등관계와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축첩제도로 인한 후처에 대한 적대감과 보상 심리 등을 확인하였다.

투고일 2016. 3. 21.

심사일 2016. 4. 21.

게재 확정일 2016. 6. 8.

주제어(keyword) 구렁덩덩 신선비(*GureongDeongDeong SinSeonBi*), 여성 제보자(female narrators), 스키마(Schema), 상흔(Trauma), 가부장적 사회(patriarchal society)

Abstracts

Women's Schema and Trauma in Korean Folktale, *GureongDeongDeong SinSeonBi*

Ru, Jin-ah

This study analyzed Women's Schema and Trauma in Korean Folktale, *GureongDeongDeong SinSeonBi*. A total of 48 *GureongDeongDeong SinSeonBi* stories and their 48 narrators in *Collections of Korean Oral Literature* are selected as materials for this study. All 48 narrators are female, most of whom were married. This study, focusing on the fact that all narrators are female, analyzed Women's Schema and Trauma in Korean Folktale, *GureongDeongDeong SinSeonBi*. According to narrators' informations, it implies the possibility that *GureongDeongDeong SinSeonBi* contains schema necessary for women who have a family. This study confirmed women's schema needed in patriarchal society in *GureongDeongDeong SinSeonBi*. Also, this study observed that women's traumas brought on by an androcentric society are revealed in the process of dictating *GureongDeongDeong SinSeonBi* stories: Widows' difficulties and their compensation mind, conflicts with sisters and sisters-in-law, and hostility on second wives from concubinage and their compensation mind.

